



STATE OF NEW YORK | EXECUTIVE CHAMBER

ANDREW M. CUOMO | GOVERNOR

즉시 배포용: 2013년 8월 5일

CUOMO 주지사, SANDY 피해자를 위한 보호소 거주 기간 연장을 발표하다

임시 거처 지원 프로그램 기간을 두 단계로 연장하다

Andrew M. Cuomo 주지사는 오늘 연방재난관리청(FEMA)이 뉴욕주의 요청에 따라 임시거처지원(TSA) 프로그램 기간의 두 단계 연장이 승인되었다고 발표하였습니다.

FEMA는 남은 84 가구의 TSA 프로그램 활용에 관한 사항을 지속적으로 검토할 것입니다. 새로운 연장 기간은 8월 16일 까지의 1 단계에서 9월 1일 까지의 2 단계로 진행됩니다. 이 새로운 기간 연장으로 초강력 태풍 Sandy로 인해 집으로 돌아갈 수 없는 피해주민들이 이 프로그램에 참가하는 호텔 또는 모텔에 계속 지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.

“임시 거처 지원 프로그램은 초강력 태풍 Sandy 피해자에게 중요한 지원으로 계속 남을 것입니다”라고 Cuomo 주지사가 말했습니다. “이 프로그램 기간의 연장은 거처를 잃은 가구주들이 향후 안정된 주거 계획을 마련하는 데 꼭 필요합니다.”

이는 장기 숙소 계획을 마련하는 동안 가족들을 호텔에 배치하는 단기 프로그램입니다.

TSA 대상자가 되려면 먼저 다음 방식으로 FEMA를 통해 연방 지원을 신청해야 합니다:

- www.DisasterAssistance.gov에서 온라인으로 등록;
- FEMA 앱을 사용하거나 m.fema.gov을 방문하여 스마트폰이나 태블릿으로 등록, 또는
- 800-621-FEMA(3362)(TTY 800-462-7585)에 전화하여 등록. 711 또는 비디오 릴레이 서비스(VRS)를 이용하려면 800-621-3362로 전화하십시오.

###

다음 웹사이트에 가시면 더 많은 뉴스를 보실 수 있습니다: www.governor.ny.gov

뉴욕주 | Executive Chamber | press.office@exec.ny.gov | 518.474.8418